

## 제8장 일제강점기

### 1. 일제의 식민통치와 지방제도 개편

#### 1) 일제의 식민통치와 민족의 수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은 일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아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고, 이어서 1907년에는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1909년에는 경찰권과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이어서 1910년 8월 22일 통감 테라우치와 총리대신 이완용 사이에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고, 8월 29일 조약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합방 후 총독 테라우치는 소위 '유고(諭告)'라는 공포문을 통하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일본천황과 총독의 통치에 순종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을 하였다. 이 유고문은 일본어와 국한문 혼용으로 만들어 전국 각지의 마을단위로 배포하여 인적이 많은 곳에 붙이도록 했다. 이 유고문은 보령 웅천의 구룡리에서도 최근 발굴되었다.

한국을 식민지화한 일제는 군인총독과 헌병을 파견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 헌병사령관이 중앙의 경무총장이 되고, 각도의 헌병대장이 해당도의 경무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는 헌병경찰과 헌병 보조원이 배치되었다. 보령지역에도 합방 이전 남포와 보령(주포)에 헌병분견소가 설치되었다.

헌병경찰의 주요 임무는 경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외에, 독립운동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즉결처분권이 있어 우리 민족에게 마음대로 태형을 가하였다,

그리고 일반 관리로부터 학교교원에 이르기까지 체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던 것도 위협적인 헌병경찰통치의 한 수단이었다.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은 일제의 헌병경찰통치로 인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독립운동가와 일제의 정책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였다.

또한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령을 발표하여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주의문’이라는 통지서를 보내서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주인 없는 토지로 간주하여 총독부로 넘어가고, 결국 일본인들에게 불하되었다.

당시 보령지역에도 다음과 같은 1913년 1월 29일자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의 고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다음 地域內의 土地調査를 開始하므로 土地所有者는 期限內에 申告書を 提出할 것을 告示한다.  
忠淸南道 扶餘郡 林川郡 韓山郡 舒川郡 定山郡 靑陽郡 洪州郡 鴻山郡 庇仁郡 保寧郡 藍浦郡  
結城郡 鰲川郡

이때 일제에 의해 새로운 토지측량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부터는 소위 문화통치라는 미명 아래 우민화(愚民化)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국민을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하려 하였다. 1면 1교주의 정책에 의해 각 면에는 소학교, 간이학교(簡易學校)가 설치되어 일본어 교육 등 일제의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인간 육성에 노력하였다. 나중에 소학교·간이학교는 모두 황국신민을 의미하는 국민학교(國民學校)로 개칭되었다. 중등학교도 실업학교만 세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국민학교와 함께 보통교육과 기술교육의 기회밖에 주지 않았다.

일제말기에 이르면 한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으면서 식민정책을 강화하여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민족말살통치와 함께 식민지 수탈정책을 강화하였다. 민족말살통치에 의하여 내선일제 황국신민화 같은 허황한 구호 아래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게 하였다. 또 황국신민서사와 신사참배는 물론 심지어 우리의 성명마저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당하였다.

그리하여 대천에도 대천동 봉황산 아래의 현재의 대승사와 구 충혼각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신사가 지어졌으며, 각급 학교에도 간이 신사가 만들어져 참배를 강요당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은 물론 대화시간도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하였다. 그리고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는 창씨개명도 강제로 이루어져서 이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 성씨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자기 성씨에 임의의 한 글자를 추가하여 2자 성씨를 만들어 종래의 3자 이름에서 성씨2자 이름2자의 4글자 일본식 성명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 우리 민족은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각종 물자를 수탈당했고, 우리의 청년들은 지원병

이라는 명목으로, 또 징병제와 징용령에 의해 일본·중국·사할린 동남아 등지로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으로 인하여 보령지역에서도 강제로 쌀을 공출해야 했고, 아주까리 기름, 송진 등을 채취해서 내야 하는 등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징병이나 징용에 의해 인적 수탈을 강요당하게 되었는데, 현재 알려진 보령지역의 징용·징병자는 4,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또 정신대에 차출되지 않기 위해 보령지역에서도 1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일찍 혼인하는 풍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 2) 식량수탈을 위한 산미증식계획

일제는 19세기 말 이후 근대화·산업화를 추진한 결과로 일본에 식량부족 현상이 초래되자 조선을 침략하여 강화도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쌀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방곡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1차대전 이후에도 일제는 공업화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자국의 식량이 계속 부족해지자 우리나라의 식량을 수탈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1918년 일본에서 쌀 과동이 일어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소위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1920년부터 1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일제는 미곡 증산을 위하여 개간 사업과 간척사업으로 농지를 확장했으며, 수리시설이 덜된 농지를 개선하여 식량을 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증산된 쌀의 대부분은 군산항이나 목포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보령지역도 장항선 개통 후에는 장항을 통하여 쌀이 반출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산미증식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제는 1925년에는 목표량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비료공급의 확대, 종자개량, 경작방법의 개선, 수리조합의 증설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쌀의 증산을 가져옴과 동시에 신흥 지주가 등장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기도 했다. 이들 지주들이 산미증식계획에 적극 호응한 것은 한편으로 당시 쌀의 부족으로 쌀값이 비쌌던 데도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산미증식계획으로 보령지역에서는 주로 간척지 개간이 매우 성행하였다. 보령지역은 해안의 간척지가 많이 분포한 것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 때 행해진 간척지 개간의 몇 군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남포면 소재 국유 간척지 318町을 동양척식주식회사에 1920년에 5년 한 대부, 껌으로 이용하게 하다.

- 오천면 오포리 소재 간석지 65町4600평을 作畚 목적으로 京城 居住 高橋久吉 외 2인에게 1922年 12月 末까지 대부(貸付) 허가
- 주포면 은포리의 간석지 87,892평을 畚으로 이용하기 위해 1930年 12月까지 준공기간으로 正井瀧太에게 매립 허가
- 주포면 은포리 앞 간석지 118,405평을 正井瀧太가 1930년 매립준공
- 천북면 장은리 소재 간석지 70,030평을 畚을 목적으로 주포면 은포리 姜應會 외 1명에게 1931년 매립 허가
- 웅천면 소황리 독산리 간석지 116,294평이 畚을 목적으로 대천면 대천리 林吉平 외 2명에게 1931년 매립 면허
- 천북면 하만리 사호리 간석지 195,000평이 畚을 목적으로 천북면 하만리 松本増太朗 외 1명에게 매립 1931년 면허됨
- 청소간석지공사를 충남흥업주식회사(忠南興業株式會社, 사장 金鍾翁)에서 1932년 완공
- 청소면 죽림리 간척지 110,000평을 吉田宗平이 1929년 면허 취득후 1935년 매립 준공
- 청소면 소재 간석지 170,880평을 청소면 죽림리 거주 吉田宗平이 1936년 매립 허가
- 청소면 소재 간석지 523,455평이 (株)有恒社((저포조합))에 의해 1938년 매립 준공
- 천북면 학성리 소재 간석지 186,655평이 학성리 林吉平외 4명이 1938년 매립 준공
- 오천면 영보리 소재 간석지 153,603평을 京城 거주 權重旭이 1938년 매립 준공
- 대천면 신후리 소재 간석지 212,571평을 일본인 荒卷이 1939년 매립 준
- 주포면 주교리·관창리의 간석지 매립공사 준공이 1941년 인가된 바, 민유지가 1 68,799坪, 국유지가 45,879평으로 매립 민유지의 취득자는 正井瀧太이다
- 오천면 소성리 간석지 39,599평이 청소면 죽림리 申允煥에 의해 1943년 매립 준공
- 남포면 월전리의 간석지 60,997평이 인천의 豊田準一이 田畚으로 1944년 매립 준공

이러한 간척공사에 있어서 주목되는 사람은 일본인 正井瀧太이다. 그는 1886년 일본 兵庫縣 三原郡 廣田村 출생으로 1915년 5월 보령 주포면 보령리에 거주한 이래 농사경영, 농사개량 등을 통하여 조선인 농민을 지도하였으며, 1918년 이래 개간사업을 경영, 下岡 政務總監의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자마자 190여 町步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농업 개량에 관해서는 官의 장려에 따라 소작인을 이끌어 지도하는 등 지방 산업경제의 발달에 공헌하여 1923년 梨本日本農會總裁官으로부터 농사공로자로서 표창을 받고, 1930년 산미증식사업공로자로서 은잔을 받고, 1932년에는 도지사로부터 산업공로자 표창을 받았다.

그는 530여 명의 소작인을 거느린 대지주로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을 철저히 이행한 보령 지역의 대표적 인물이었으며, 1918년 保寧郡新城消防組長, 1922년 學校組合管理者, 1923년 面協議員, 在郷軍人分會 顧問 등을 역임하며 널리 사회활동을 하기도 했다.

### 3) 지방제도의 개편

한일합방 후인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제(地方官制)에 의하여 지방행정 기구가 개편되었는데, 이때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13도(道)로 크게 구획하고, 그 밑에 부(府)·군(郡)·도(島)를 두었으며, 말단 행정단위로 읍(邑)·면(面)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도에는 주임관(奏任官)인 도장관(道長官: 뒤에 道知事)을 두고, 부와 군에는 주임관인 부윤(府尹)과 군수(郡守)를 두었으며, 면에는 판임관(判任官) 대우의 면장(面長)을 두었다. 이때 도·부·군의 수는 종전과 같았으나, 종전에 사(社), 방(方), 면(面)의 명칭으로 불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던 면이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군의 하부 행정단위인 면으로 되어 4,332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상의 개혁 필요성을 느낀 일제는 1914년 3월 1일 부군폐합령(府郡廢合令)을 발표하고 지방행정구역을 대수술하여 폐합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행정구역 정리 기준으로서는 부는 부제(府制) 시행상 될 수 있는 대로 구역을 한축(限縮)하고, 군은 면적 약 40방리(方里) 인구 약 1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군은 인접군에 병합하며, 면은 대체로 약 4방리 800호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달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병합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의 지방행정구역은 13도 220군 2521면이 되었다.

그동안 면장(面長)은 군수의 보조기관으로 하등의 직제상 규정이 없던 것을 1917년 칙령1호(制令1號) 면제(面制)에 의하여 군수 하부 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켰다.

1914년의 부군통폐합령에 의한 지방제도 정비에 따라 보령지방에는 보령군과 남포군 그리고 오천군이 합해져서 보령군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보령과 남포가 각각 다른 행정구역으로 내려왔지만 이때 와서 비로소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 군명을 남포로 할 것인가 보령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결정 과정은 알 수 없다.

그리고 1914년 10월 1일 보령군의 청사를 현재의 대천에 새롭게 정하면서 대천이 오늘날처럼 보령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4년 부군통폐합령에 의해 만들어진 보령군의 하부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面名	廢合面名	里數	面名	廢合面名	里數
大川面	保寧郡 于蘿面, 睦忠面 一部	10	珠山面	藍浦郡 佛恩面, 習衣面	11
周浦面	保寧郡 周浦面, 長尺面, 睦忠面 一部	10	藍浦面	藍浦郡 郡內面, 新安面, 北外面	13
靑所面	保寧郡 靑所面, 長尺面 一部	8	嶺山面	藍浦郡 北外面, 深田面	16
靑蘿面	保寧郡 靑蘿面, 吾三田面	11	鰲川面	鰲川郡 川東面, 河南面, 河西面 一部	10
熊川面	藍浦郡 熊川面, 古邑面 一部	13	川北面	鰲川郡 川北面	8

이와 같이하여 일제는 한국지배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면·동·리에 이르기까지 물샐 틈없는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지방행정조직의 지방관은 중앙과는 달리 한국인이 다수 기용되었다. 이유는 한국인의 일본 침략에 대한 완강한 저항이 병합 이후에도 계속 되어 지방치안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14년에 이르러서야 군·면의 폐합 등 겨우 행정구역이 정비되지만 구획재편이나 지명변경 등에 대한 저항도 완강하였다. 이러한 지방을 일본인이 통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부득이 한국인을 다수의 지방관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인 지방관 밑에는 일인 관리가 파견되어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지방관 임용은 지방 통치의 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회유하여 친일적으로 만들어 식민통치에 협력하게 하자는 이중적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일제시대 보령군에도 보령군수나 각 면의 면장이 한국인으로 많이 임명되었다.

한편 경찰행정은 무단통치의 일환으로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면서 각도에 헌병대를 두고 그 아래에 헌병분대, 분견소, 파견소, 출장소를 두었으며, 경찰은 각 도에 경무부를 두고 경찰서, 그 아래에 분서·순사주재소 등을 두었다. 주포 보령리에 처음 만들어졌던 보령경찰서는 1914년 11월 군청사가 있는 대천면 대천리로 옮겨졌다.

## 2. 항일민족운동

### 1) 3·1운동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일제에 항거하는 우리 민족의 혼을 일깨우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서지역에서 최초의 3·1운동이 일어난 곳은 예산이었다. 3월 3일 이곳에서는 윤철영 등 5인이 모여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시작이었다.

#### (1) 주산 주립산 3·1운동

보령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어 주산의 주립산 만세운동과, 청소·주포의 만세운동이 있었다.

서울에서 배재고등학교에 다니던 주산 증산리 출신의 이철원(李哲源)은 학생전위대(學生前衛隊)로 독립운동을 하던 중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왜경의 감시가 심해지자 이를 피하여 고향인 보령 주산에 내려왔다가 만세운동을 전개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동지

들을 모으고, 태극기도 만들면서 거사를 준비했다. 이때 모은 동지들은 대부분 인근 마을에 사는 이철원의 친인척들이 대부분이었다. 시골의 사정상 비밀유지에 유리하고 쉽게 접촉이 가능한 이유였을 것이다.

이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3월 15일(음 2월 16일) 간치(주산) 장날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계획했으나 사전에 기밀이 누설되어 장터 곳곳에 왜경들이 삼엄한 감시를 하는 바람에 거사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3월 16일 밤 애국지사들은 주립산 국수봉에 올라가 횃불을 밝히며 태극기를 산 정상에 꽂고 독립선언서에 혈서로 서명한 후, 징을 치며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이에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며 산에 오르니 기세가 당당했다.

다음날 다시 야룡리 북개봉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모의했으나 대부분의 애국지사들이 왜경에 체포·연행되어, 야룡리에 사는 박윤화만이 혼자서 북개봉에 올라가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불렀다.

그후 왜경에 체포된 애국지사들은 왜경의 모진 고문을 당했고, 며칠 후 홍성구치소에 수감되어서도 많은 고문을 당하였으나 모두 왜경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매일 3회씩 지속되는 43일간의 혹독한 고문 끝에 소위 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태형(笞刑) 60~90장씩 받고 풀려났을 때는 모두 엉덩이 살이 헤어지고 팔다리를 못쓰게 되어 걸어 나올 수조차 없어 교자(轎子)를 타고 나왔다고 한다. 장독의 후유증에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 윤용원은 출소 후 한 달 만에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체포되지 않은 이철원과 윤천영을 잡기 위해 왜경은 그들이 살던 마을에 매일 찾아와 주민과 친척들을 닦달하고 행패를 부리는 만행을 계속했다.

이철원은 해외로 망명하였다가 해방 후 돌아와 대한민국의 제2대 공보처장을 지냈다. 주산 주립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름	본관	출생지	수형인명부 기록	서훈
박태현(朴台鉉)	경주	주산면 증산리	태형 90	대통령 표창
윤용원(尹用源)	파평	웅천면		
이관규(李觀圭)	전주	주산면 증산리	태형 60	
이성규(李成圭)	전주	주산면 증산리	태형 60	
이성수(李性秀)	전주	주산면 증산리	태형 60	
이장규(李壯圭)	전주	주산면 증산리	태형 90	대통령 표창
이철원(李哲源)	전주	주산면 증산리		
이홍규(李洪圭)	전주	주산면 증산리	태형 60	

이항규(李恒圭)	전주	주산면 증산리		
김양제(金亮濟)	경주	주산면 주야리	태형 90	대통령 표창
박성하(朴性夏)	밀양	주산면 주야리		
윤천영(尹天榮)	파평	주산면 주야리		
이철규(李哲圭)	전주	주산면 주야리	태형 90	대통령 표창
임문호(任文鎬)	풍천	주산면 주야리	태형 90	대통령 표창
박윤화(朴潤和)	밀양	주산면 야룡리	태형 90	대통령 표창
윤기호(尹起鎬)	전주	주산면 유곡리	태형 60	
최봉규(崔鳳圭)	강릉	주산면 창암리		
신도휴(申道休)	고령	청라면 내현리		

※ 박성하 · 이항규 · 최봉규는 주산면사무소 소장의 『수형인 명부』에 나타나 있지 않고, 본적이 주산이 아닌 윤용원과 신도휴는 『수형인 명부』에서 확인이 안되며, 윤천영 · 이철원은 체포되지 않아 형을 받지 않음.

## (2) 청소 · 주포의 3 · 1만세운동

김사구(金思九, 농업. 보령 청소면 정전리 거주)와, 강영국(姜寧國, 농업. 같은 마을 거주)은 3·1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듣고, 이에 호응하여 자신들이 주모자가 되어 마을 주민들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할 것을 모의하고 4월 10일 불꽃놀이를 빙자하여 임경호(林庚鎬) · 이병철(李秉喆) · 고광춘(高光春) · 박계건(朴齊乾) · 한기석(韓基錫) 등을 같은 면 성연리 신태중(申泰重)의 집으로 초빙하여 이들에게 “근래 타군에서는 각처 산위에 봉화를 올리고 또는 많은 사람이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시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장에서는 그러하지 않으니 이는 조상의 은혜를 잊은 후레자식 들인 고로 우리가 주모자가 되어 보령리 진당산 위에서 시위운동을 하겠으니 가담하라” 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4월 12일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명중(李鳴鍾, 농업. 청소면 죽림리)과 성배호(成培鎬, 농업. 광천면 웅암리)는 조선 독립을 주창하는 취지를 기재한 선언서의 문장을 양지(洋紙)에 대서(大書)하여 이를 광천 시장과 웅암리의 두 곳에 게시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오인섭(吳仁燮)의 집에서 탄산지(炭酸紙)를 사용하여 독립선언서의 요지를 약 50매 복사하여 이를 반포하였다.(자료: 독립운동사자료집 5집)

## 2) 한국유림단의 파리장서운동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의병활동, 의거, 독립군 활동, 실력양성

운동 등 수많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중 1919년의 3·1운동은 파리강화회의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온 국민의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길이 빛나고 있다. 그런데 3·1운동의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에 동참하지 못했던 유교계에서는 이때 나름대로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니 그것이 한국 유림단의 파리장서운동이었다.

파리장서는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유림대표 137명이 서명하여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한, 당시 한국의 실정과 왜적의 침략성을 국제 정의에 호소한 긴 글이다. 그런데 여기에 서명하여 이 운동에 참여한 137명의 우리나라 유림대표 중 보령지역의 유림은 6명이다. 나아가 호서지역의 유림은 17명이다.

이 운동은 영남 유림 곽종석과 호서유림 김복한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전혀 사전에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이었다. 또한 같은 영남 유림 김창숙도 서울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담은 장서를 보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곽종석의 제자들과 서울에서 조우하게 되어 서로 협심하기로 하고 영남 유종(儒宗)인 곽종석에게 문안작성을 부탁하였다. 이리하여 영남본 장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곽종석의 문인과 김창숙은 참여할 유림 동원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을미사변 후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바 있던 호서 유림의 유종(儒宗)인 김복한은 3·1운동 직후 영남 유림들의 경우와 같은 동기 및 목적에서 파리평화회의에 보낼 장서를 작성하여 김복한 자신을 비롯한 청양의 안병찬·김덕진·임한주, 홍성의 최중식·전양진·이길성, 서산의 김상무·김봉제, 보령의 유호근·백관형·유준근·김병식·신직선·김지정, 논산의 이내수, 부여의 김학진 등 17명의 서명을 받아 발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때 김창숙은 호서유림 임경호를 만났고,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같은 취지와 같은 목적으로 된 독립청원서를 휴대한 양 대표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은 우리의 독립을 기필코 성공하게 하려는 천지신명이 도운 기연(奇緣)으로 여기고 힘을 합하기로 즉석 합의하였다.

양측 문안의 검토 결과 호서본도 그 내용은 영남본과 비슷하였지만 영남본이 보다 간명하여 영남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서명자 명단은 영남 호서의 구별 없이 혼합하여 열기(列記)하기로 하였는데, 서명자는 모두 137인이었다.

한편 장서에 서명하는 순서에서 곽종석을 첫째로 하고, 김복한은 그 다음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김복한은 서명 순서에 대하여 주위에서 물의가 있자 “모든 것은 우리의 성의에 있는 것이지, 어찌 서명의 선후를 다투겠는가. 비록 가장 말석에 참여한다 해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여 항일 독립이라는 지상과제 아래 영남과 호서 유림간의 학파와 당색의 벽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김복한이 지은 호서본은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하나는 김복한의 차자 김노동(金魯東)이 보관하다가 분실하였고, 하나는 제자 전용옥(田溶域)이 해방 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소각했다고 한다.

파리장서운동 서명자 137명 중, 검거 후 일제의 경상북도경찰국에서 작성한 『고등경찰요사』에는 호서지역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김복한을 비롯해서 17명이다. 이 중 보령지역에 본적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6명이다. 보령지역과 관련 있는 유림 6명은 유희근(柳浩根), 신직선(申稷善), 김지정(金知貞), 유준근(柳濬根), 백관형(白觀亨), 김병식(金炳軾)이다.

모두 남당·화서학과 계열의 유림들이었다. 특히 유준근은 김창숙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유림 동원 책임을 맡고,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 당시 계화도에 은거하고 있던 낙론계의 유종 간재 전우의 장서 참여를 권유하기도 했다. 간재 전우는 파리장서운동에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파리장서에 참여한 보령지역 및 호서지역 유림은 다음과 같다.

〈자료 : 고등경찰요사〉

성명	주소	연령	비고
白觀亨	忠南 保寧郡 嶺山面 開化里	59	
柳浩根	忠南 保寧郡 書蘿面 玉溪里	67	書蘿面→靑蘿面
柳濬根	忠南 保寧郡 大川面 內峴里	60	內峴里→內項里
申稷善	忠南 保寧郡 大川面 施山里	66	施山里→花山里
金炳軾	忠南 保寧郡 靑蘿面 坡陽里		坡陽里→昭陽里
金智貞	忠南 保寧郡 純川面 坪里	30	純川面→熊川面
金福漢	忠南 洪城郡 西部面 梨湖里	60	
崔仲軾	忠南 洪城郡 洪東面 求精里	43	
李吉性	忠南 洪城郡 西部面 梨湖里		
田穰鎭	忠南 洪城郡 結城面 衡山里	48	
安柄瓚	忠南 靑陽郡 化城面 新帝里	66	
金德鎭	忠南 靑陽郡 赤谷面 樂里	55	
林翰淸	忠南 洪城郡 化城面 水汀里(본적) 忠南 洪城郡 西部面 板橋里(주소)	48	林翰淸→林翰周
金鳳濟	忠南 瑞山郡 雲山面 巨城里	62	
金商武	忠南 瑞山郡 音巖面 遊漢里	28	
李泰植	忠南 洪城郡 龜戶面 新谷里		
金鶴鎭	忠南 扶餘郡 以下不明		
李來修	忠南 論山郡 天赤面 忠谷里		

※ 이름, 주소, 나이는 <고등경찰요사>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함